

서울 중구 1차 추경 29.9억 중 2500만원 삭감

(윤혜)

구의회, 임시회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통과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관오)가 최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14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

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3개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출이 있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강현미 의원, 행정보건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운성 의원, 복지건강위원회 부위원장은 박창배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강위

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 강현미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지리대상 교통수단 범위를 수도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정상의 개인정보 책무를 의무화했으며, 지원 중단 및 환수 관련 조문을 정비해 예산집행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29억9000만원 중 시스템 이용료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근거가 부족해 1월분 2500만원

을 삭감했다. 박창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통과됐다. 위원장에는 박창배 의원, 부위원장은 문영희 의원이 선출됐으며, 위원으로 손주화 의원, 강현미 의원, 양은미 의원, 김

득현 의원, 최운성 의원, 강운희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4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여영준 기자 yyy@sinilibo.co.kr

‘관악문화플라자 복합화’ 현장 점검 임만균 서울시의장 “지역 활력 기대”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옛 금천경찰서 부지(관악구 신림동 544)에 조성되고 있는 ‘관악문화플라자 복합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임 의장은 주택실(공공주택), 문화본부(문화시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면담을 하고 공공주택 270여가구를 비롯해 시립도서관, 주민 개방 주차장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지난날 공사에 들어간 ‘관악문화플라자’는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임 의장은 “2019년 서울시가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뒤로 7년 만에 옛 금천경찰서 부지 시립도서관 사업이 첫 삽을 떴다”라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민이 하루빨리 복합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또 “관악문화플라자가 들어서면 금천경찰서 이전 이후 체제였던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관악’이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주차장 시설 일부 개방으로 인근 주택가 주차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준공까지 꼼꼼하게 챙겨와 달라”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nilibo.co.kr

의정 역량 강화 교육

마포구의회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최은하)는 최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대응 능력을 높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최은하 의장을 비롯한 마포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전 오산시의회 제6대 부의장이자 현 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인 최인혜 박사가 강사로 나서 지방의회 실무 전반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실제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최 박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비롯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주요 절차와 실무 사항을 설명하고, 의원들이 입법·예산·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특히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과 효율적인 예산 심의 기법을 상세히 다루며, 한정된 재원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심사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운영 절차, 질의 기법, 자료 분석 방법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틀러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기관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성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민호 기자 mmh@sinilibo.co.kr



김미경 의장과 유재광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지난 29일 본회의장에서 한복 입고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성공과 의회·집행부 간 협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복 입은 수원시의회... 임시회서 '수원 방문의 해' 적극 홍보

경기 수원시의회(의장 김미경)가 지난 29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고, 의회와 집행부, 여야 간 존중과 배려,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함께 한복을

착용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미경 의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의원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홍보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며 방문의 해 분위기가 확산에 힘을 보

태고, 시민을 위한 의정과 시장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날 본회의는 유재광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맡아 여야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회 문화와 협치의 의미를 더했다.

김미경 의장은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수원의 역사와 문화, 관광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수원·임종민 기자 jim@sinilibo.co.kr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개정안’등 15건 안건 원안·수정가결

구의회, 임시회 마무리

서울 은평구의회(의장 신윤경)가 최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들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구의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에는 각 상임위

원회에서 소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으며, 21~29일에는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또한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은평구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의견청취안 ▲(가칭)신사초소년문화회 설립위탁 동의안 ▲구립 진달래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구립 폭포동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등이 원안가결됐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수정가결됐다.

이대우 기자 nice@sinilibo.co.kr

행강 대미 3~25일 제보 접수 해남군의회

전남평주통합특별자치 해남군의회가 제353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행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제보를 받는다.

30일 군의회에 따르면 군정 전반기에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을 군민이 알려주면, 이를 검토해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제보 기간은 오는 8월3~25일

며, 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정사태 ▲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이다. 다만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비방성 내용,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상에 관한 사항, 익명 제보, 그밖에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군의회 홈페이지(참여하담-군민제보)와 이메일,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해남군의회 전문위원실로 연락하면 된다. 해남·정찬현 기자 jcrs@sinilibo.co.kr

중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외 최대 취재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언론의 시작은
언제나 연합뉴스입니다.